2003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미리 주문하세요! 불교사진작가의 작품으로 만든 달력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32종)
마하몰 02)732-1520
http://www.mahamall.co.kr

www.bbsradio.co.kr FM 89.9 MHz
BBS 부산불교방송

"아난의 총지·문수의 지혜를…"

"법계(法界)에 두루하옵신 부처님! 오늘 저희들은 법등(法燈)이 빛나고 법향(法香)이 온 도량에 가득한 조계산 송광사에서 범일보성 대종사의 증명 하에 무비 강백을 전강 아사리로 모시고 전강식(傳講式)을 봉행하게 되었음을 고하나이다."

5일 순천 송광사 대웅보전. 능허스님이 고불문(告佛文)을 낭독하자 전강식에 참여한 200여 사부대중은 무비스님(조계종 교육원장)으로부터 강맥을 전수받는 9명의 눈 밝은 납자(衲子)들에게 일제히 시선을 보냈다.

무비스님 전등강맥 전수법회 열린 날

◇전강 아사리인 무비 스님이 9명의 강맥 전수자들에게 훈화를 하고 있다.

능허(조계종 불학연구소장) 현진(송광사 승가대학 강주) 원철(월간 '해인' 편집장) 지상(전 은해사 승가대 강사) 용학(범어사 승가대 강사) 정한(범어사 승가대 강사) 지성(불광사회과학연구원장) 상현(전 해인사 승가대 강사) 현석(동화사 승가대 강사)스님. 법당 맨 앞에 좌정한 이들 스님들은 경허→한암→탄허→무비 스님으로 내려오는 강맥을 전수받는다는 사실에 고무된 듯, 상기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대강백 무비스님의 전등강맥(傳燈講脈) 전수(傳授) 법회는 근래에 찾아보기 힘들만큼 대규모로서, 강맥을 전수받는 스님들 면면 또한 뛰어난 학적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전강(傳講)이란 교학의 사자상승(師資相承)을 말한다. 즉 강학 전등의 뜻으로, 부처님과 스승의 학적 토대를 제자에게 물려주는 의식이다.

고불문 낭독이 끝나고 마하가섭의 '염화미소'를 상징하는 한화가 이뤄졌다. 잠시 후 전강 아사리인 무비스님이 등단을 하자 9명의 전강제자들은 3배를 올렸다. 무비스님은 제자들에게 각기 다른 전법게(傳法偈)와 스님이 직접 번역한 화엄경, 과거칠불(過去七佛)로부터 이어지는 전등법계보(傳燈法係譜)를 강맥 전수의 신표로 전달했다. 또한 능허 현진 원철 지상 용학 정한 지성 상현 현석 스님에게 각각 일진(一眞), 혜등(慧燈), 혜조(慧照), 청림(淸林), 법해(法海), 현산(賢山), 중산(重山), 지월(智月), 정안(靜安)의 법호를 내렸다.

무비스님은 훈화에 앞서 송광사와의 인연부터 까내놓기 시작했다.

"70년대 초 쯤이었나요? 여기 송광사 문수전에서 4~5명의 납자들과 자유롭게 정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캄캄한 밤 관음전으로 가기 위해 더듬더듬 성냥을 찾았습니다. 손에 잡힌 성냥으로 불을 켰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불법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즉 어둠과 밝음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과거 선사들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무명실성 즉불성(無明實性 卽佛性). 그 때의 깨달음 소신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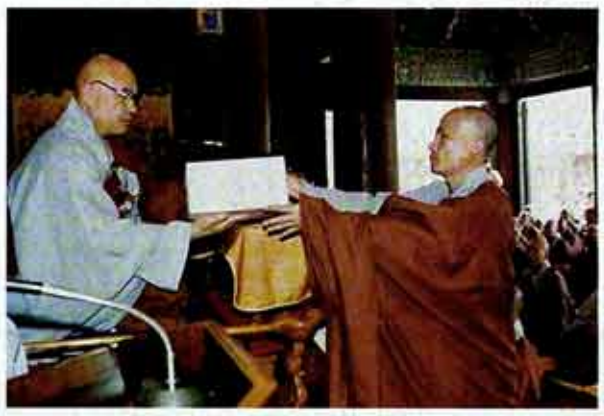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 또한 놓치지 않았다.

"역사의 강물이 쉼 없이 흐르듯 전통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는 생각으로 정진 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달마가 동토(東土)로 온 것도 같은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학인과 강사가 다른 것은 강사가 학인보다 2배 더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훈화가 끝나자 현진스님이 전수제자 대표로 입지발원문(立志發願文)을 낭독했다.

"세존이시여, 저희에게 이심전심하는 가섭의 미소를 터득하고, 팔만법장 다문하여 아난의 총지(總持)를 얻으며, 분별망상 그대로 문수사리의 지혜가 되고, 행주좌와 일체행은 보현의 만행(萬行)이 되게하소서. 형체 없는 저 허공 부서져 없어진다 하여도 금강 같은 저희 원력 끝 없으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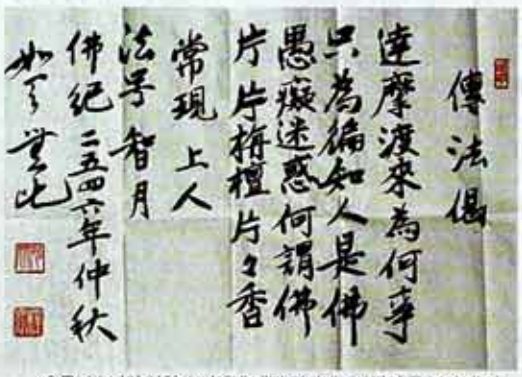
이어 오늘 강맥 전수식을 축하하기 위한 각계 인사들의 축사가 이뤄졌다.



◇무비 스님이 전강 제자들에게 신표로서 전법게와 경전, 법계보를 전달하고 있다.

전법게·경전·전등법계보 전달 9명의 제자들에게 법호 내려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지안스님은 "한국불교의 현재 상황을 보면 교학분야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학풍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요즘 학문하는 모습을 보면 꽃꽂이 하는 식으로 외형에만 너무 신경 써 내실이 부실한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강맥이 세속적인 정실과 야합하는 인맥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傳法偈
達摩渡來爲何事
只爲偏知人是佛
愚癡迷惑何謂佛
片片栴檀片々香
常現 上人
法号 智月
佛紀 三五四六年仲秋
如來 堂比

◇무비스님이 상현 스님에게 내린 전법게. '사람이 곧 부처님'이란 무비 스님의 평소 지론이 담겨있다.

◇전강식이 끝나고 기념촬영했다. 왼쪽부터 원철 지성 현석 현진 지상 능허 상현 용학 정한 스님이다. 앉은 이는 무비 스님.

◇이번 전강식은 현진 스님의 송광사 강주 취임을 계기로 이뤄졌다. 현진 스님이 전강제자 대표로 입지발원문을 낭독했다.

전강식과 강맥

"내 청정법안의 열반묘심과 실상무상의 미묘정법을 너에게 부촉하느니, 너는 마땅히 호지하라(경덕전등록)" 하신 부처님과 마하가섭의 유지를 잇는 전강은 전법의 한 유형으로, 선가의 전심(傳心) 및 율가의 전율(傳律)과 함께 교가 사법(嗣法)의 한 형태다.

전강식과 관련된 문헌은 존재치 않으나 대개의 경우 강(講)할 능력을 인정받은 강사에게 대중이 삼배를 올리고 스승이 그 강사에게 법호를 내림이 일반적이다. 전강받은 제자는 개당설법(開堂說法)을 통해 공인을 받음이 전례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을 통한 전강의 풍습은 현대에 와서 점차 사라져 왔으며 서적이나 전강게송을 전함으로써 강맥을 잇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다.

강맥은 제1조(祖)인 마하가섭(摩訶迦葉)부터 27칠조 반야다라(般若多羅)까지, 28조인 중국의 보리달마(菩提達磨)부터 56조 석옥청공(石屋淸珙)까지, 이후 57조인 우리나라의 태고보우(太古普愚)로 이어졌다.

6·25 이전만 하더라도 전국의 강원은 영호한영 축원진응 금봉병연 등 3대 강백 7대 강사로 불려진 대덕들이 있었다. 이 중 한영스님은 순천 선암사 설유처명 스님으로부터 강맥을 전수받았다.

한영 스님은 운허용하(耘虛龍夏) 운기성원(雲起性元) 운성승희(雲惺昇熙) 고봉태수(高峰泰秀) 성능복문(性能福文) 철운종현(鐵雲宗玄) 명봉(明峯) 학봉(鶴峰) 스님들에게 강맥을 전수했다.

이번에 전강식을 가진 여천무비(如天無比) 스님은, 한암 중원 스님에게 강맥을 이은 탄허공성 스님에게 전수 받았다.

스님은 58년 출가, 64년 해인사 강원을 수료하고 제방 선원에서 10여년 안거를 성만했으며 범어사 통도사 강주를 지냈다. 조계종립승가대학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조계종 교육원장으로 있다.

부처님 유지잇는 사법(嗣法)형태 대중에 강의할 능력 공개적으로 인정

강맥 전수받으려면

강맥을 전수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특별히 없다. 무비스님은 "강맥을 전수받기 위해선 내 사상이 푹 젖어들어야 하고 선교를 겸해야 하며 인품도 뛰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또 "아무리 학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100일 이상은 스승 밑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한 3년 정도 같이 있으면 제자들의 학문적 수준뿐 아니라 내면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며 "특히 강맥을 전수하는 은사와 제자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전강을 쉽게 결정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에 강맥을 전수받은 스님들은 무비스님이 조계종립 승가대학원 원장으로 있을 때 인연을 맺었다. 9명 스님들이 모두 승가대학원을 졸업하고 큰사찰의 승가대 강사를 역임했으며 각기 경전주석서도 발간했다. 승가대학원 1기인 능허스님은 범어사 강원을 졸업한 뒤 직지사와 범어사 승가대학 강사를 역임했으며 〈역주(譯註) 북본열반경(北本涅槃經)〉 등의 주해서를 냈다. 같은 1기 출신인 현진스님도 통도사 강원을 졸업한 뒤 통도사 승가대학 중강, 직지사 승가대학 강사를 역임했으며 〈역주(譯註) 능엄경정맥소(楞嚴經正脈疏)〉 등을 냈다. 역시 승가대학원 1기 출신인 원철스님은 해인사 강원을 졸업한 뒤 해인사 승가대학 중강,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를 역임했으며 〈역주(譯註) 선림승보전(禪林僧寶傳)〉등을 발간했다.

선·교 겸하고 인품뛰어나야 자격 스승밑에서 100일 이상 정진해야

승가대학원 2기인 정한스님은 통도사 강원을 졸업한 뒤 범어사 승가대학 중강을 역임했으며 〈역주(譯註) 불조삼경지남(佛祖三經指南)〉등을 펴냈다. 같은 2기인 지성스님은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를 졸업한 뒤 불광사 불광교육원장을 역임했으며 〈역주(譯註) 금강경삼가선해(金剛經三家禪解)〉 등을 펴냈다. 현석스님도 2기 출신으로 동국대 불교대학을 졸업한 뒤 실상사 화엄학림 2기,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를 역임했고 〈역주 (譯註) 화엄경개요(華嚴經槪要)〉 등을 펴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